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월 8일

CUOMO 주지사, 2014년도 의제에 대해 요약 발표하다

경제 변화, 정부 기능 장애를 결과로 대체, 정당 대신 사람 중시, 뉴욕을 미국의 혁신 리더로 복원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4년도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난 3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이하로 지출 감소 및 4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소득 증대, 100억 달러의 적자를 20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 뉴욕주 10개 지역의 실업률 감소, 40만개에 달하는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뉴욕주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모든 세 곳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뉴욕주의 대외신인도 개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해 뉴욕주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혁신 정책 이행 등 뉴욕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포괄적인 안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2014년도 안건은 이러한 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각 가정이 보다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면서 지출을 억제하고,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확대하며, 인프라를 재건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실을 바꾸고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과감한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얻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뉴욕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며, 세금 감면과 기업 유치 등으로 경제를 변모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세계적 수준의 학교를 개발하며, 뉴욕을 다시 한 번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십만 개나 더 많은 민간 부문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뉴욕주 10개 지역에서 실업률을 낮췄으며,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공을 책임지는 학교,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 보다 형편에 맞는 보건 활동 및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욕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14년에는 뉴욕의 미래를 위해 가장 포괄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건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납세자들에게 재정 완화를 제공하며, 학교에게는 미래의 교실을 안겨주고, 뉴욕주의 인프라를 새로운 기후 현실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혁신적으로 가꾸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뉴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Korean

Cuomo 주지사는 시정 연설 메시지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의 성공적인 일자리 증대 전략 지속

세금 경감: 지난 3년 동안 재정 개혁을 실시한 결과, 뉴욕주는 주지사가 취임했을 때 10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던 것에서 2016-17년까지 20억 달러의 재정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출 증가를 위해 이러한 수익을 사용하기 보다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뉴욕 주민들과 기업체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안은 뉴욕주 조세개혁및공정위원회 및 조세감면위원회의 노고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근로 가정을 위한 재산세 동결:** 뉴욕의 부동산세는 미국 최고에 속합니다. 주요 사유 중의 하나는 납세자들에게 높은 부담을 주고 비즈니스 환경을 해치는 지방정부의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분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지사는 2년 동안 재산세를 동결하여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재산세 상하한도 내에 있을 경우 첫 해에 재산세 동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째 되는 해에는 재산세 동결 하에 있으려면 지방정부도 서비스를 분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지불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재산세 "공제제도" 마련:** 190만명의 저소득 및 중소득 납세자들은 소득세율을 초과하는 소득과 관련해 효과적인 부동산 세율을 내게 됩니다. 이들 가정과 개인들을 돕기 위해 주지사는 최고 2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의 지불 능력을 바탕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어 재산세 공제제도가 완전히 도입될 때까지 궁극적으로 1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상당한 주택 부담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세금 감면 제공**: 뉴욕주에서는 330만명의 가구들이 임대 생활을 하고 있고, 829,000여명의 저소득 세입자는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의 뉴욕 세입자들에게 의미 있는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한 가정 규모를 고려해 환급 가능 개인소득세 공제를 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260만명의 세입자에게 4억여 달러의 세금 공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금 감면**: Upstate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회사의 연간 부동산세의 2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을 공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제조업체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Upstate에 유치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Upstate 지역 제조업체에게 법인세율을 없애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안은 제조업 부문에 약 1억6,10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 **법인세 개혁:** 뉴욕주의 법인세 구조를 간소화하는 것은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주 전역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은행세를 회사 법인영업세에 통합하고 세율을 6.5%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1968년 이후로 가장 낮은 법인세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에게 연간 3억4,60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 **부동산세 개혁:** 뉴욕은 미국에서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15개 주의 하나입니다. 뉴욕은 현재 연방정부보다 개인의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뉴욕의 노년층에게 뉴욕주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스러운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맞추기 위해 뉴욕의 세금 면제 한도를 올리고 4년 동안 최고 세율을 10%로 낮추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 **18-A 유틸리티 초과 비용에 대한 단계적 폐지 가속화:** 뉴욕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세의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TUA(Temporary Utility Assessment(18-A)는 가정 및 사업체,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에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Cuomo 주지사는 연간 2억 달러까지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하고, 업계 고객에게는 임시 추가 요금을 즉시 없애고, 주민 및 기타 업계를 위해 단계적 폐지를 재촉해나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비즈니스에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 행정-입법위원회 구성: 뉴욕주정부의 토론활동이 별다른 실천 없이 수년을 넘기자 주지사는뉴욕주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고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주 입법부와 공동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마침내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전력수송로와 뉴욕주 선로설비포설권에 의존하는 전력수송 프로젝트 촉진: 뉴욕주의 전력수송 인프라가 낡아 Upstate New York의 초과 전기가 수요가 가장 많은 Downstate 지역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전기격자에 발생하는 전력수송 병목현상으로 유틸리티 비용이 증가하여 낡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발전소가 좀 더 주기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때 환경 및 경제적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전기 수요에 대처하고 지방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지사는 기존의 전력수송로 안에 모두 구축하거나 또는 수로 및 고속도로와 같은 기존의 뉴욕주 선로설비포설권을 따라 매설하는 프로젝트를 앞당겨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REDC 라운드 4 출범: 주지사는 세계의 투자와 일자리를 Upstate New Yokr에 유치하기 위해 “Global NY” which will link START-UP NY과 지역경제개발위원회(REDC) 사업을 연계할 것입니다. 이번 REDC의 네 번째 라운드에서, 뉴욕주는 Global Marketing과 Export Strategies를 통합하는 계획을 인정해 이에 상을 수여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START-UP N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START-UP NY Global Initiative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Global NY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2014년, 주지사는 외국인 투자자와 교류하고 지역 및 현지 리더들과의 동료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무역 및 투자에 관한 Global NY Summit을 개최할 것입니다.

Upstate 및 야외로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Upstate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도록 이끌어 이 지역의 경제 활동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주지사는 Boater Safety Certificate 및 새로 생긴 뉴욕주 주립공원 평생통행권(State Parks' Empire Pass)과 같은 개인의 평생 면허 지정을 위한 선택형 아이콘이 들어가는 운전면허증인 NYS Adventure License를 발부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미개발된 뉴욕주 소유 토지를 찾는 엽사, 낚시꾼, 조류관찰자 및 기타 야외 활동가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50개의 새로운 만남 프로젝트(access projects)를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새로운 실외 프로젝트도 제안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공원 시스템의 부활을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최우선사항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AT&T와 합작으로 개발한 최초의 I Love NY 관광 스마트폰 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앱은 뉴욕주 전역의 종합적인 지리 특정 관광, 레크리에이션, 숙박 및 식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앱은 현재 Apple 앱스토어와 Google Play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 산업 서밋을 통해 목표한 투자 유도: Cuomo 주지사는 Upstate 농업을 Downstate 소비자 및 시장과 연결시키기 위해 2014년도 새로운 Upstate-Downstate Food-to-Table Agriculture Summit을 포함해 또 다른 경제 성장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제 2라운드의 산업 서밋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 시설을 Upstate NY에 구축: 2014년, 뉴욕주는, 성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찰자를 선택하기 위해 GFLB(Gaming Facility Location Board) 임명을 포함해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를 Upstate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절차는 관광을 늘리고 Upstate 경제 성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입찰과 입찰자를 얻기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NY 유전자 의약품 네트워크 설립: 주지사는 NY 유전자 의약품 네트워크(Genomic Medicine Network) 설립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는 유전자 의약품 연구 및 일자리 개발을 위해 뉴욕시에 있는 의료 커뮤니티를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 자리한 University at Buffalo의 계산 인프라 및 생체의학 연구 전문지식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입니다.

뉴욕의 관문인 공항 현대화: 뉴욕의 공항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JFK 및 LaGuardia 공항은 뉴욕시 지역의 주요 경제 엔진이지만, 설계와 전반적인 승객 경험이라는 면에서는 미국 최악의 공항으로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들 주요 교통 허브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항만청에서 공항 건설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을 포함해 뉴욕으로 들어오는 이들 두 개의 주요 관문을 업그레이드할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혁신적인, 보다 안전한, 보다 깨끗한, 보다 공정한 커뮤니티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출범: 연구에 의하면 의료용 마리화나가 암 및 기타 중병의 통증과 치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병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Cuomo 주지사는 기존의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The Antonio G. Olivieri Controlled Substances Therapeutic Research Program; PHL Art. 33-A)을 이용해 최고 20개의 병원에서 중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 시범 프로그램을 발족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수혜 환자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 시스템의 효용성과 타상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향후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뉴욕주 "Raise the Age"를 돕기 위해 청소년, 공공안전 & 사법 위원회 창설: Cuomo 주지사는 뉴욕 청소년의 범죄 및 청소년 사법 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공공안전 & 사법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욕은 형사 책임 연령(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연령)을 16세로 하는 미국의 두 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뉴욕에서 거의 40,000명에 이르는 16-17세 청소년이 성인 법정 또는 형사 법정에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정에서는 이들이 필요한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NY Youth Works 프로그램 확대: NY Youth Works 프로그램은 출범 이후 뉴욕 이너 시티 청소년 중 13,000명 이상이 1,270개 사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4년에 프로그램 규모를 향후 4년 동안 매해 6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늘리고 직원을 보유할 경우 추가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의 구인연결프로그램(Job Linkage Program)을 통해서 고용주에게 교육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형편에 맞는 주택 3,000호 마련 및 보유: 지난 해,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 형편에 맞는 주택 14,000여호를 건축 및 복원하기 위해 House NY을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다가구 개발단지에 3,000호의 추가 주택을 건축 및 보존하기 위해 추가로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건설 사업은 3,500여개의 신규 건설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커뮤니티 재진입 및 재통합을 위한 뉴욕주 위원회 출범: 전과자들이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뉴욕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 주택, 보건, 교육, 취업, 재향군인 서비스와 관련한 주 정책이 연방 및 지방 활동과 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지사는 커뮤니티 재진입 및 재통합을 위한 뉴욕주 위원회(NYSCCRR)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에 있는 비영리 및 재진입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해 주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수의 기관들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성평등법 쟁취 활동 지속: 2013년 봄, Cuomo 주지사는 성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 야심차고 혁신적인 법률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여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률 개혁을 진행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성평등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급여 형평성 달성
- 가족 상태 차별 종식
- 모든 직장에서의 성희롱 근절
- 임신부 차별 근절
- 고용 및 신용, 차용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회수 허용
- 수입 차별 원인에 대처하는 주정부 입지 개선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택 차별 근절
- 보호명령 법률 강화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 인신매매 법률 강화
- 선택 자유권 보호

윤리 개혁: 주지사는 주정부에 대한 뉴욕 주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뉴욕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뉴욕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개혁을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반 뇌물수수 및 부패법, 선거 재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단속 및 감독, 비즈니스 관련 외부 의뢰인의 뉴욕주 공개를 제안하였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학생 보호: 지난 11월, 뉴욕 주민들은 Pine Bush Central School District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소식과 관련해 끔찍한 주장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경찰청과 인권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즉시 명령하였습니다. 올해, 주지사는 모든 학생들을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공립학교에게 차별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경우 주교육부(SED), 인권부, 주경찰청에게 통보하도록 주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SED가 마련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모든 학생들이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인권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 삼진아웃제: Cuomo 주지사는 2014년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과의 싸움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그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음주 운전을 하거나 또는 마약 또는 알코올로 건강이 안좋은 상황에서 운전하여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5년 동안 운전면허 발금을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평생 동안 이러한 유죄판결을 세 번 받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전면 취소하는 내용도 규정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자 전송 및 운전에 대한 엄중 단속 지속: 운전 중 문자 전송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1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 Cuomo 주지사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두배 연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였습니다.

MWBE 사업체에 대한 기회 확대 지속: 지난 3년 동안 뉴욕주는 소수집단 및 여성 기업체(MWBE)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동등한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MWBE 참여는 이 프로그램 역사 상 최초로 2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지속시키고 MWBE의 경제적 성장을 늘리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MWBE 인증 기업의 수를 2,000개 추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상이용사 소유 기업의 홍보 및 확대: 뉴욕의 퇴역군인 및 군인 가족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지원 및 확대하기 위하여 Cuomo 주지사는 주 계약 사업의 5%를 상이용사가 운영하는 소기업에게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들이 직면한 특이한 문제를 처리하고 뉴욕주가 이들을 위해 보다 잘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VMFS(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Summit)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뉴욕 학교 혁신

뉴욕 학생들의 교육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이들에게 번영의 길과 사회에서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뉴욕주에게는 보아 안정적인 경제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학생들이 양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혁신과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Smart Schools 채권발행 투표 출범: 주지사는 모든 뉴욕 학교들을 오늘날의 초고속 최첨단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Smart Schools" 채권발행 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승인할 경우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첨단 교실을 제공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Smart Schools" 기금은 각 학군에 배정됩니다.

최우수 STEM 학생들을 뉴욕에 거주하도록 장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는 뉴욕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의 하나입니다. 최우수 학생들이 STEM 칼리지 학위를 이수하고 뉴욕에서 직장을 갖도록 이끌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고교 졸업생 상위 10%가 STEM 경력을 이수하고 5년 동안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이들에게 SUNY 또는 CUNY 칼리지 또는 대학교의 장학금을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우수 교사에 대한 보상: 교사 평가 시스템의 보편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주지사는 각 학군이 최우수 교사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TEF(Teacher Excellence Fund) 출범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가 학군에 속한 최우수 교사는 TEF를 통해 최고 20,000 달러의 추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NYSUNY 2020 및 NYCUNY 2020 확대 및 출범: 주지사는 뉴욕주의 공립대학교를 학문적 우수성과 경제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삼은 또 다른 NYSUNY 2020 및 NYCUNY 2020을 제안하였습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기술을 사용하여 학업 성공과 경제 개발을 개선하고, START-UP NY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 기회를 활용하며, 학생들을 직장과 연결시켜주는 인턴십과 같은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보상 계획으로 고등교육 성과에 뉴욕의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에 유아학교 종일반 개설: Cuomo 주지사는 지난 해 프로그램에서 도움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거주 아이들에게 유아학교 종일반을 제공하는 업무를 확대하면서 모든 아동을 위해 진정한 "Universal Pre-Kindergarten" 액세스라는 뉴욕주의 목표를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뉴욕을 새로운 현실로 가꾸기 위한 재구상

초강력태풍 Sandy, 허리케인 Irene, 열대성 폭풍 Lee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Cuomo 주지사는 미래의 이상 기후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인프라, 교통망, 에너지 공급, 해안 보호, 기상 경보 제도 및 비상 관리를 변혁할 170억 달러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뉴욕주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강화할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 홍수 증가로 인해 위험에 처한 104개 노후 교량의 교체 및 수리
• 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으로 110년래 최대의 뉴욕주 교통 시스템 재건 시행;
• 전주 전략연료 비축 및 주 전역의 중요 루트상에 전주 주유소 백업 전력 구축;
• 뉴욕주의 전력공급망 강화, 정전 시 "에너지 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건물을 위해 10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뉴욕주 해안선 및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내륙 수로를 위해 첨단 홍수 통제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자연 인프라 구축;
• 주 전역의 124개 커뮤니티가 자체의 개별적 폭풍 탄력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6억 5000만 달러의 NY Rising 커뮤니티 재건 프로그램을 확대.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커뮤니티가 미래에 닥칠 폭풍 및 기타 응급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 지역의 극한 날씨 및 침수 조건을 실시간 경보하기 위해 상호연결된 125개의 날씨 관측소 등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날씨 탐지 시스템 구축;
• 미국 최초의 비상대비 국토보안 사이버보안 대학 출범;
• 뉴욕주 주민들이 비상 및 재난을 처리할 준비가 미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시민 최초 대응자단 훈련;
• 최초 대응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번호판 발급

주지사는 또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해 발생 시 Metro-North 서비스를 보호할 중요 시스템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해 Penn Station Access Project를 제안하기도 하였스빈다. 전체 Metro-North 시스템은 현재 Harlem River Lift Bridge와 Mott Haven Junction에 의존하며 맨해튼 안팎으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초강력태풍 Sandy 발생으로 추가적인 철도망 복원력의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100년만에 최초로 허드슨강 터널과 Penn Station으로 연결된 East River 터널 두 개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트랙을

사용하면서 New Haven Line에 이들 노선 통로 양쪽을 우회하는 새로운 연결구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으로 Grand Central에 영향이 미칠 경우 Metro-North에 두 번째 맨해튼 터미널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주지사는 Penn Station Access Project에 따른 네 개의 새로운 역사를 Eastern Bronx에 건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할 새로운 기동차 구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들 커뮤니티를 통근열차를 통해 맨해튼 West Side와 I-95 구으로 처음으로 연결해주고 자연재해 및 인재 발생 시 복원력을 증대해줄 것입니다.

Shaun Donovan 미주택및도시재개발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연방의 허리케인 Sandy 재건작업반의 권고로 장기적인 재건 프로세스에 대한 뉴욕주의 청사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governor.ny.gov/press/01072013-cuomo-biden-future-recovery-efforts를 방문하십시오.

North Country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 관련 연구 시작: North Country 지역의 주민과 기업체들은 캐나다 국경 남쪽과 Adirondack Park 주변 북쪽을 연결하는 노선을 따라 Watertown의 I-81과 Champlain의 I-87를 보다 잘 연결시키는 데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 다수의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중요한 North Country 구간에 가장 효율적인 교통 개선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심도 있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